

어떻게 낳은 자식인데

효자제일교회 목사·홍 순관

내가 또 말하노니 유업을 이을 자가 모든 것의 주인이나 어렸을 동안에는 종과 다름이 없어서 그 아버지의 정한 때까지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 있나니 이와 같이 우리도 어렸을 때에 이 세상 초등 학문 아래 있어서 종 노릇 하였더니 때가 차매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아들인고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이을 자니라 그러나 너희가 그 때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본질상 하나님이 아닌 자들에게 종노릇 하였더니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 뿐더러 하나님의 아신 바 되었거늘 어찌하여 다시 약하고 천한 초등 학문으로 돌아가서 다시 저희에게 종 노릇 하려 하느냐 너희가 날과 달과 절기와 해를 삼가 지키니 내가 너희를 위하여 수고한 것이 헛될까 두려워하노라 [개역, 갈라디아서 4:1~11]

지난 주일 저녁예배 특송 시간 때 제 6여전도회에 신선한 회원이 한 명 추가 된 것을 보았습니다. 낮에 연습할 때부터 좀 놀렸습니다. 이제 겨우 결혼한지 2주밖에 안 된 새댁인데, 결혼한지 10년이 넘은 다른 아줌마들 사이에 끼여서 뛰하는 거냐고 많이 놀렸는데, 꾹꾹하게 연습을 하더니, 찬양을 잘하고 들어갔습니다. 우리에게 기쁨을 주었지요?

그 모습을 보면서, 쓸데없는 생각이지만, 딸 한 명 키워서 저렇게 시집을 보내는데 얼마나 들까요? 시집가는 데만 해도 적지 않은 비용이 들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만, 그 동안 키우고 공부 시키느라고 들어간 돈을 다 생각해보면 참 적지 않을 겁니다. 혹시나, 시집보내고 나면 본전 생각이 나지 않을까요? 돈만이 문제가 아니라 정말 애지중지 키워가지고 떠나보낸다고 생각하면 참 아쉬움이 적지 않을 것입니다.

딸은 그렇게 내보내니까 아쉽지만 아들은 괜찮습니까? 아들은 내 아들이다라는 생각을 하시는 분이 혹시시면 바보입니다. 아들이든 딸이든 별 수 없습니다. 장가가고 시집가면 이미 품을 떠나는 것이지 내 것이 더 이상 아닙니다. 그 동안에 얼마나 공을 들였든, 더 이상 내 것이 아닙니다.

이런 경우는 있어서는 안 될 일이지만, 남편 없이 아들을 애지중지 키운 어떤 어머니가 아들을 장가보내 놓고도 밤에 옆에 끼고 잤다고 합니다. 마음이야 ‘어떻게 키운 자식인데...?’ 그렇다고 엄마가 데리고 가면 어떻게 하라는 말입니까? 그 동안에는 어떻게 키웠든지, 일단 결혼 시키면 이 아들은 내 아들이 아닙니다. 며느리에게 보내야 합니다. 막말로 아무리 본전 생각이 나도 이 아들은 며느리 것이지 내 것이 아닙니다. 아들도 딸도 더 이상 내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아들이 생각을 잘못해서, “어머니, 아버지께서 날 열심히 키워서 본전을 뽑으려고 그렇게 한 건 아니지요?” 라고 한다면 이것도 부모님의 속을 완전히 긁어 놓는 것입니다. 부모님을 섭섭하게 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자식들이 결혼을 하게 되면 완전히 내어 보내야 되죠? 더 이상 내 소유가 아닙니다. 내 아들, 내 자식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내 보내야 합니다만, 반대로 자식들 입장에서는 신랑, 신부가 마음을 모아서 부모를 기쁘게 해드려야 합니다. 가장 큰 효도가 됩니까? 매달 용돈 보내고 생활비 보태드리고, 이런 것이 잘 하는 것입니까?

가장 큰 효도는 잘 사는 것일 겁니다. 더 이상 부모 걱정 안 시키고 잘 사는 것이 어찌면 가장 큰 효도 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애지중지 키워서 잘 보내놓았는데, 제대로 살지 못하고 고생만 하고 있다는 것을 부모가 들으면 얼마나 속이 아프겠습니까? 심지어 매 한 대 안 대고 키운 딸인데, 시집가서 신랑한테 두들겨 맞고 산다는 말을 들으면 얼마나 부모 마음이 아프겠습니까? 그러나 자식들은 그렇게 부모를 기쁘게 하기 보다는, 평생 근심거리가 되고 부모의 가슴을 아프게 하는 것이 일반적인 모양입니다. 대체로 그런가 봐요.

정말 드물게, 예쁜 자식이 있는 것도 보긴 보았습니다. 어떤 부모님이 다 큰 자식을 가리키며 ‘내가 어떻게 저런 자식을 낳았을까? 저게 정말 내 배 속에서 나온 자식이 맞나?’ 싶을 때가 더러 있답니다. 그런 자식도 가끔은 있습니다. 너무 기대하지는 마세요, 아주 드무니까요. 대부분의 자식들은 부모 속을 그렇게 썩이는 게 정상인가 봅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려고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서 십자가에 죽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을 믿기만 하면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습니다. 그렇게 믿는 자들을 불러 모아서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고 교회에 모인 여러분들은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어떤 자녀로 살고 계십니까? 혹시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정말 내가 어떻게 저런 자식을 낳았을까?’ 이런 생각을 하십니까? ‘그런 일이 있겠냐?’고 하지 마세요.

웁이 왜 그런 고난을 받게 되었습니까? 정답은, 하나님께서 그 사탄을 보고 한 얘기가 그겁니다. “내 종 웁을 봤나?” 하나님께서 자랑하고 싶으신 거예요. 웁이 얼마나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자녀였으면 그렇게 자랑하고 싶으셨겠어요? 그 자랑 때문에 사탄이 심사가 뒤틀려서 일이 그렇게 벌어진 거 아닙니까? 웁 한 사람만 그럴까요? 전 바라건대,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자랑스러운 자녀들이 다 되었으면 합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보시고 그런 일은 없겠지만, ‘내가 저런 자식을 왜 낳았나?’고 하시면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는 하나님 보시기에 어떤 자녀인지 한 번쯤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6, 7절을 보십시오, **‘너희가 아들인고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이을 자녀라’**

예수 믿는 우리는 모두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당연히 우리 속에 하나님의 영이 있어야 합니다. 아니 있다고 그러합니다. 6절 보세요,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라고 말씀하시죠?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우리 속에 하나님의 아들의 영이 있습니다. 아들의 영이라는 말은, 로마서의 표현을 빌린다면, 종의 영과 대조됩니다.

종의 영, 종의 생각 말이지요. 종은 주인에게 참 충성합니다. 종은 주인의 말을 잘 듣습니다. 두렵기 때문에 종은 주인에게 충성하고 주인의 말을 잘 듣습니다. 종의 영이라고 하는 것은, 두려움 때문에 복종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럼 아들의 영은 뭐니까? 아들의 마음이지요. 여러분 모두는 하나님께서 아들의 마음을 주셨기 때문에 그 아들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부를 때, 뭐라고 불러요? 옛날 우리 성경에는 전부 아바라고 되어 있었죠? 아바 아버지.

그래서 어떤 진짜 멍청한 분이 “아바 아버지, 즉 아버지의 아버지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할아버지로 불러야 한다.” 이런 엉터리 같은 사람도 있었는데, 그래도 그런 사람을 따르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아바’; 지금 개정된 성경에는 ‘아빠’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들의 영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른다.’는 뜻입니다. 종은 두려워서 복종합니다. 그러면 아들은 친근하게 대하는 것, 이것이 아들의 영입니다.

여러분의 아들, 딸들은 여러분의 말을 잘 듣습니까? 잘 듣는 경우도 있겠지만, 대부분 잘 안 듣습니다. 그 왜 그렇게 안 들어요? 학교 선생님의 말이라고 하면, 잘 듣는 아이가 자기 선생님보다 잘난 자기 엄마 아빠 말은 잘 안 들어요. 참 이상한 노릇이지만, 그게 아들의 영입니다. 근데 아들이 아버지한테 너무 예의 바르니까, 그것도 좀 이상하더라고요. 우리 아들래미가 아주 어릴 때, “아빠, 아빠” 이렇게 하고 다니다가, 어느 날 유치원에서 배운 모양이에요, 하루는 “아빠, 내일부터 아빠라고 하지 않고 아버지라고 부르겠어요.” 그래서 그 때부터 “아버지, 아버지” 하는데요, “아빠, 아빠” 하던 녀석이 갑자기 “아버지”하면 무슨 느낌이 드는지 아세요? 예? 껴어 보신 분은 아실테지만 징그럽더라고요.

대학교 다니는 우리 아이들 유심히 한 번 보세요. 한 두 해 선배한테 전화가 오면 “예! 선배님, 예, 알겠습니다!” 이러면서 아빠한테는 반말 비슷하게 합니다. 한 해 선배한테 전화가 오면 존댓말을 어찌나 잘 쓰는지 모릅니다. 왜 그렇습니까? 아버지에게는, 아버지와의 관계는 그렇게 친근한 관계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버릇없는 듯 하고 말을 좀 안 듣는 듯도 하고 그런 겁니다. 그러나 선배한테는 그렇게 깽뎛습니다. 하물며 종이 되면 얼마나 말 잘 듣고 충성스럽게 하는지 모릅니다만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는 그런 관계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일진데, 우리 속에 아들의 영을 주셔서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르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을 그렇게 친근하게 대하도록 하셨다는 뜻입니다.

같이 지내긴 지내야 하는데 그렇게 친하게 지내고 싶지 않은 사람에게는 꼭 존칭을 쓰시면 됩니다. 존댓말을 꼭꼭 쓰세요, 정중하게. 그러면 항상 일정한 거리를 유지하게 됩니다. 친해지지가 않아요. 좋은 건 아닙니다만, 존댓말이, 존경하고 예의를 잘 차라는 것이 좀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감히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르시겠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그렇게 친근하게 지내라고 하시는 겁니다. 신약 시대에만 이랬던 것이 아닙니다. 사실은 신명기 10장 20절에 보면 하나님을 친근히 하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친근히 하라는 것은 친하게 지내라는 말입니다. 모세시대에 하나님께서 그런 명을 주셨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런 명을 받았음에도 하나님은 가까이 하기엔 너무나 먼 분이었습니다.

여호수아가 임무를 다 마치고 세상을 떠나기 전에 유언을 남기면서 하나님을 친근히 하라는 말을 여러 번 되풀이 합니다. 그럼에도 구약시대에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생각은 하면서도 절대로 그렇게 부르지를 못했습니다. 못 불렀습니다. 말하자면 아주 어렵기만 하던 아버지였죠. 그랬던 그 하나님을 예수님께서, 친히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라고 가르쳐 주셨던 것입니다.

어떤 분이 양자를 들었는데 아이가 말을 참 잘 들어요. 아버지 입장에서는 이 아이가 말 잘 듣는 것이 힘든 겁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이가 반항을 하는 순간, 아버지의 마음이 그렇게 좋더라. ‘애가 진짜로 이제 나를 아버지로 생각하는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는 거예요. 양자로 데려온 아이가 말을 잘 듣는 이유가 뭡니까? 잘못 했다가는 쫓겨날지도 모른다는 불안감 때문에 말을 잘 듣는 겁니다. 그래서 말을 잘 듣는 것이 그렇게 기쁘지가 않아요. 그런데 어느 날, 아버지에게 대드는 걸 보는 순간에 아버지 마음이 그렇게 평안해 지더라는 것입니다. ‘이제는 애가 나를 아빠로 인정하는구나’ 하는 느낌이 들더라 얘기죠.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예의를 갖추는 것은 옳지만 두려움 때문에 떨떨 떠는 것은 절대로 바람직한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우리 속에 아들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과 친근하게 지내야 한다는 것을 6절이 가르쳐줍니다.

7절 끝 부분에 보시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이을 자니라’**고 합니다. 우리가 아들이라면 하나님의 유업을 받을 자입니다. 유업을 이을 자라는 이 표현이, 때로는 회사의 후임자가 될 수도 있고, 한 나라의 후계자가 될 수 있는 말입니다. 왕이 유업을 물려줄 자는 세자라고 부릅니다.

하나님께서 유업을 물려줄 자는 뭐라고 불리요? 아쉽게도 적당한 단어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냥 ‘유업을 물려줄 자’라고 표현해 둔 겁니다. 그러면 이 ‘유업을 물려줄 자’라는 말은, 세자보다 더 어마어마한 말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세자나 후계자나 그런 단어보다 더 어마어마한 명칭인데, 우리말에 이 단어가 없어요. 드라마를 많이 보신 분들은 세자라고 해도 별로 관심이 안 되죠? 하도 세자가 쫓겨나는 장면을 많이 보았으니까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유업을 이어줄 자는 절대로 변경되거나 취소되는 일이 없습니다.

이 ‘유업을 이을 자’를 1절에, **‘내가 또 말하노니 유업을 이을 자가 모든 것의 주인이나...’** 그러죠? 모든 것의 주인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 모든 것의 주인은 하나님입니까, 하나님의 아들입니까? 누가 주인이죠? 우리가 아는 한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이지만 이 본문대로 한다면, 유업을 이을 자가 모든 것의 주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유업을 이을 자이고 우리가 모든 것의 주인이라는 겁니다. 너무나 실감이 안 되는 이야기네요?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의 주인입니까, 하나님의 아들 된 우리가 만물의 주인입니까? 그 말이나 그 말이나 같은 말입니다. 정말 어마어마한 말 같아서 조심스럽긴 합니다만,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우리가 하나님의 유업을 받을 자라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돌아가실 일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돌아가신 다음에 재산을 물려주는 것과는 다른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유업을 이어받을 자라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를 거의 동등한 수준에 올려놓겠다는 뜻입니다. 이게 너무나 어마어마한 말이라서 그래도 되느냐 싶은데요, 요한일서 3장 2절에, **‘사랑하는 자들이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 것은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내심이 되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계신 그대로 볼 것을 인함이니’** 이 말씀 중에 놀래야 할 부분이 어느 말씀입니까?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같은 존재가 된다는 뜻입니다. 너무 어마어마한 말씀이죠?

또 바로 그 다음을 보세요. **‘그의 계신 그대로 볼 것을 인함이니’** 우리는 지금 하나님 볼 수 없습니다. 만

약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시면 우리는 다 죽습니다. 똑바로 쳐다 볼 수가 없어요. 그 날에는 그의 참 모습 그대로 볼 거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처음 사람을 만드셨을 때에는, 하나님과 아름다운 교제를 할 수 있는 존재로 만드셨습니다. 범죄한 이후에 그 자격을 다 빼앗겨버렸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 모양이 되어 있는 거죠. 그러나 그 분이 나타나실 때가 되면, 그 날에는 그 지위를 다 회복시키시면, 심지어 '우리가 그와 같이 될 것을 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이 얼마나, 얼마나 값어치 있고 중요한 표현인지를 이 말씀들이 우리에게 잘 전해줍니다. 말씀은 그러한데 우리 자신을 들여다보면,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맞습니까? 정말 하나님의 후계자이고 하나님의 유업을 이을 자가 맞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다고 하고, 하나님이 그렇다고 하시면 '아멘' 하셔야 합니다. 이건 내 자신이 평가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럼 '아멘' 하셔야죠.

그런데 우리는 우리 자신을 들여다보면서, '내가 이 모양이 돼서 무슨 하나님의 아들이고, 내가 이래서야 어떻게 세자노릇을 하겠느냐?' 그런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누가 세자를 지목합니까? 임금이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그 세자가 바보짓을 하면 어떻게 됩니까? 세자가 바보짓을 하면, 세자가 죽어나는 게 아니고 기본적으로 세자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죽어납니다. 사고는 세자가 치고 죽어나는 것은 그 주변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의 유업을 이을 자라면 우리가 그 신분에 걸맞게 그 정도 자신감을 가지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온 세상의 주인이 될 우리가, 하나님과 같게 될 우리가 너무 조그마한 일에 울고 웃고, 왔다갔다 그러지 말자는 것입니다. 당장 내 손에 쥔 것이 없을지라도 장차 모든 것을 가지게 될 우리가 그 작은 것에 너무 얽매어서 살지 말자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살면서 거지같이, 종같이 그렇게 살지 말자는 뜻입니다.

싫으나 좋으나 우리 인생은 참 고달픈 것입니다. 없어서 걱정이세요? 재산을 얼마나 가지면 만족하실 것 같아요? 가진 게 별로 없는 우리 입장에서는 막상 원하는 대로 가져보세요, 여전히 모자랍니다. 한 때 크게 성공했다가 비극적인 결말을 맞이하는 경우를 우리 주변에서 얼마든지 볼 수 있지 않습니까? 많은 걸 가졌던 사람이 사고를 치면 더 크게 칩니다. 우리 주변에 이런 예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나홀로 집에? 그 영화에 등장했던 꼬마 말이죠, 어릴 때 그 영화 때문에 얼마나 많은 돈을 벌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 아이가 그렇게 유명한 배우가 되고 돈을 그렇게 많이 벌었기 때문에 그 가정이 얼마나 풍비박산이 되었는지 한 번 알아 보세요. 부모는 이혼하고 그 조그마한 것이 마약 중독자가 되어서 폐인이 다 되었답니다.

많이 가지면 행복한 것 아닐까요? 많이 가졌고 한 때 크게 성공했기 때문에 그것이 오히려 더 큰 실패로 돌아가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정말 행복해야 할 사람들이 그렇게 행복하지 못한 예를 우리가 주변에서 너무나 많이 볼 수 있는 겁니다. 우리 아이들이 고생고생 해서 갈 대학도 없다고 오만상의 염려를 해 대다가, 간신히 합격 통지서 받고 좋아서 어쩔 줄 모릅니다. 며칠 갑니까? 며칠 안 가서 '인생이 참 허무하다, 처량하다' 소리가 나오는 걸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다른 사람이 볼 때, 정말 행복에 겨울 수밖에 없는 경우도 정작 자기는 행복하다고 느끼지 못합니다.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평안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은, 이 세상의 그 어떤 것으로도 평안하지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손에 아무 것도 없고 일이 그렇게 안 풀린다 하더라도 여러분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만물을 유업으로 이어 받을 자이기 때문에, 진정으로 평안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아들이 된 게 누구 덕분입니까? 2절부터 보세요. '그 아버지의 정한 때까지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 있나니 이와 같이 우리도 어렸을 때에 이 세상 초등 학문 아래 있어서 종 노릇 하였더니 때가 차매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2절에는 '아버지의 정한 때'라는 말이 있고, 4절에는 '때가 차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정하신 때에 아들을 보내사 속량하시고 우리에게 아들의 명분을 주셨다고 말씀하십니다. 때를 정한 것도 하나님이시고 방법을 택하신 것도 하나님이십니다. 말씀 한 마디로 온 세상을 창조하실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께서 무엇 때문에 길고 긴 고생을 치르신 다음에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냐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보내시겠다는 작정은, 아담이 범죄한 때부터 이미 말씀하셨습니다. 죄 짓고 야단맞고, 면목없이 쪼그리고 있는 아담에게 들으라고 여자의 후손을 보내주겠다는 약속을 하십니다.

온 세상이 악으로 가득 찼을 때에 세상을 멸하시면서도 하나님은 노아를 불러내셨습니다. 그 후, 후손들이 또 바벨탑 사건으로 또 하나님께 대항하고 범죄하여 온 세상에 흩어진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또 아브라함을 불러내셨습니다. 그 아브라함의 후손들을 애굽에서 다시 불러내셔서 하나의 민족을 삼으셨습니다. 이 모든 과정이 됩니까? 여자의 후손을 보내기 위해서 길을 닦는 겁니다.

그렇다가 하나님께서 정한 때가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이 메시아를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복잡한 과정을 밟으셨는지 이유는 모릅니다. 그저 감사할 뿐입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가 되기까지 그 긴 긴 세월동안 그 어려운 과정을, 힘들고 어려운 과정을 다 밟으시면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신 방법은 더더욱 이해가 잘 가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기 위함이었다고 말합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 높고 높은 하늘 보좌에 앉아계셨던 분입니다. 그 분이 낮고 낮은 우리에게까지 내려오신 겁니다. 요즘 유명한 말 중에 '눈높이 교육'이란 거 있잖아요? 선생님이 아이들의 눈 높이에 맞추어서 교육하는 것도 정말 감사하고 대단한 일입니다. 그런데 높고 높은 곳에 계셨던 그 하나님께서 우리하고 눈을 맞추시기 위해서 이 땅까지 내려오셨다는 게 얼마만큼 감사한 일입니까?

4절에 보시면, '여자에게서 나게하시고'란 표현을 씁니다. 누군 뭐 남자에게서 낳니까? 무슨 뜻으로 그런 말씀을 하시나요? 예수님께서 우리와 같은 인간이 되셨단 뜻입니다. 율법 아래 나게 하셨다는 것은 죽을 인생을 살리기 위해서 죽을 곳 까지 내려오셨단 뜻입니다. 가끔 영화에 인질을 구하기 위해서 지하감옥 같은 데까지 뚫고 들어가는 영화가 더러 있죠? 그렇게 들어가다가 보통은 다 죽지 않습니까? 다 죽는데 주인공 한 두 사람이 겨우 살아남아서 인질들을 구해냅니다. 인질을 살리겠다고 죽을 곳으로 들어가는 것이 우리에게 더러 감동을 줍니다.

선교사들이 탈북자들을 도와서 성경을 가르쳤더니, 이 분들이 은혜를 받고는 죽음을 피해서 도망나왔던 그 땅으로 다시 들어갔답니다. '우리가 이 복음 받고 건달 수가 없다. 이 복음을 들어야 할 사람들이 저 죽음의 땅에 있다, 우린 그들을 위해서 다시 돌아가겠다.' 그래서 북한으로 다시 돌아간 이야기입니다. 얼마나 감격스러운 이야기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하늘나라에 있던 예수님께서 죽을 인생을 살리기 위해서 이 죽음의 땅까지 내려오셔서 인간이 되셨다는 얘기는 이것보다 더 감동적인 이야기입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로 삼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낮아지셨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이걸 기억한다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아들을 삼기 위해서 우리 주님이 얼마만큼 낮아지셨는가를 안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 노릇을 제대로 해야 합니다. 부모님이 고생한 것만 생각해도 아들 노릇 제대로 합니다. 우리를 위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아픔을 겪으셨다는 것을 안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다운 삶을 살아야 합니다. 어떻게요? 한 시도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란 사실을 잊지 마셔야 합니다. 우리 자신을 귀하게 여겨야 합니다.

예수님 비유 중에, 집 나갔던 아들이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두 번 다시 집을 나가면 안 됩니다. 집을 나갈 일이 또 생길까요? 다른 일로는 안 나갈 것 같아요. 그냥 생각이지만, 이 아들이 집으로 돌아온 다음에 혹시 마을로 놀러갔더니, 동네 사람들이 흥을 봅니다. "재산 다 털어먹은 주제에 니가 어떻게 아들이라고 뽀뽀스럽게 네가 그 집에 들어가 있느냐?" 동네 사람들이 그렇게 말할 때 가만히 들어보면 그 말이 일리가 있지 않습니까? 맞는 말이죠? 아버지 재산을 다 털어먹은 내가 어떻게 다시 이 집 와서 아들이라고 꼬떡거리고 다닐 수 있느냐는 말이에요.

동네 사람들이 혹시 그렇게 말을 하게 되면, '어? 그 말 맞네요.' 그래서 다시 보따리 싸서 나가야 됩니까? 나가고 싶어도 나가면 안 됩니다. 왜요? 나를 용서해준 아버지 때문에 난 나가고 싶어도 나갈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동네 사람들이 그렇게 비난하고 욕을 한다면 거기 맞붙어 싸워야 합니다. 왜요? 누굴 위해

서요? 나를 위해서가 아닙니다. 나를 용서하고 나를 아들로 다시 불러들인 아버지를 위해서 싸워야 합니다. 아버지가 나를 다시 받아주었는데 당신들이 왜 그러느냐고 싸워야 합니다. 그래 놓고 집에 들어와서는 아버지 앞에서는 당당한 아들이라고 큰 소리 칠 수 없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그래도 하나님의 아들인데!'라고 큰 소리 칠 자격은 없을지 몰라도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향해서, 누군가가 비난하는 그 사람들 앞에서, 사탄의 그 손가락질 앞에서 담대하게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희생하셨노라!'고 담대하게 외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왜 종노릇하려 하느냐?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서 너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셨는데 왜 너희가 종노릇하려 하느냐?

1절 보세요. '내가 또 말하노니 유업을 이을 자가 모든 것의 주인이나 어렸을 동안에는 종과 다름이 없어서 그 아버지의 정한 때까지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 있나니 이와 같이 우리도 어렸을 때에 이 세상 초등 학문 아래 있어서 종 노릇 하였더니' 어릴 때는 그럴 수 있다는 겁니다. 어릴 때는 청지기 밑에, 혹은 후견인 밑에서 감독을 받을 수 도 있지만 장성한 후에는 그럴 수 없다는 겁니다. 다 큰 후에도 종처럼 빌빌 거릴 수 없다는 이야기지요. 여기서 어릴 때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오셔서 믿음으로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길을 열어 놓으시기 이전을 가리킵니다.

이전 구약시대에는 율법을 지킴으로써 구원을 받는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율법을 지키느라고 10절에 보시면, '너희가 날과 달과 절기와 해를 삼가 지키니' 율법을 지킨다는 겁니다. 이런 절기를 지킨다고 책망하는 것이 아니고 이런 절기를 지킴으로써 구원을 받는다고 말하는 것 때문에 사도바울이 이렇게 책망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너희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는데 너희가 왜 율법 밑에 가서 종노릇하고 있느냐고 책망하는 거죠.

구원을 얻기 위해서 절기를 지키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 성도들은 이미 구원을 얻은 감사로서 절기를 지키는 겁니다. 주일날 예배 안 빠져야 천국 가는 게 아니고 이미 천국을 얻었기 때문에 주일을 지키는 겁니다. 만약에 갈라디아 성도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놀라운 은혜를 저버리고 다시 율법의 종이 된다면 바울은 참 안타까운 얘기를 합니다. 11절, '내가 너희를 위하여 수고한 것이 헛될까 두려워하노라' 여러분들을 위해서 내가 목숨을 버려가다시피하며 복음을 전했는데 너희가 다시 율법으로 돌아간다면 그 동안 내가 수고한 게 뭐가 되겠느냐는 얘깁니다. 바울의 노력만 헛수고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들을 위하여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신 예수님의 그 희생은 뭐가 됩니까? 나아가서 아담의 때부터 지금까지 이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기 위하여 수고의 수고를 거듭했던 그 하나님의 노력, 그 노력이 다 어떻게 되냐는 말입니다. 너희가 어떻게 다시 율법으로 돌아가서 율법의 종이 될 수 있느냐고 책망을 하는 겁니다. 어릴 때 잠깐 율법에 매여서 율법의 종노릇 할 수는 있을는지 몰라도 예수 믿고 구원받은 너희는 다시는 행위로 구원 받을 수 없다는 겁니다.

말씀을 맺으면서, 우리가 누구인가를 한 번 더 살펴봅시다.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 같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철 없는 아들인 것 같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인 건 틀림없죠. 다 큰 아들입니까? 철 없는 아들입니까?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다 큰 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혹시 우리 중에 하나님 앞에서 종처럼 살고 계시는 분은 없습니까? 그저 하나님이 두려워서 예배 한 번 빠지면 큰 일 날 것 같은 두려움 때문에 빠지지도 못하면서 이 눈치 저 눈치 봐가면서 억지로 그냥 다니고 계십니까? 빨리 벗어나야죠. 정말 철없을 때나 그렇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과 친밀하게 지내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여러분을 바라보시고 하나님께서 '내가 어떻게 저런 아들을 다 나았을까?' 이런 기쁨이 들도록 해야 안 되겠습니까?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기쁨을 누리며 이 어려운 땅을 잘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